

# 집에 사는 몬스터

THE MONSTER  
IN  
THE HALL

2023.  
09.28 목 ~ 10.03 화

9.28(목) 19:30 / 9.29(금) 19:00 / 9.30(토) 19:00  
10.1(일) 15:00, 19:00 / 10.2(월) 19:30 / 10.3(화) 15:00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원작 David Greig

연출 임지민

출연 김은석, 남권아, 이지혜, 이종민

## The Monster In The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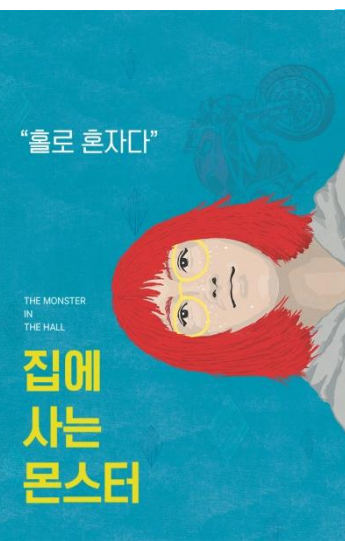
### 공연 소개



# 목 차



- 원작자 소개
- 연출 및 스태프 소개
- 출연진 소개
- 시놉시스
- 연출컨셉
- 공연 소개
- 공연 특징
- 작품개발과정 / 공연 연혁 / 수상
- 무대연출 / 공연사진 -1,2,3차
- 언론보도 / 평론,시상평 / 리뷰, 관람평







# 원작자 소개



원작자: David Grieg

## 대표작

- 음악극 <미드섬머>
- 연극 <노란달> 외 다수

- 스코틀랜드 국립극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21세기 대표 영국 극작가
- 1996년 런던 Traverse 극장에서 <EUROPE>으로 데뷔
- 시대상을 담보하는 진지한 연극작가로서 정치적, 사회적 비판을 담은 이 시대의 창작극의 선두주자
- 인간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과 유머를 동시에 가진 보기 드문 작가
-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 방식의 다양한 연구를 통한 고전의 각색과 현재 창작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어와 문체의 방식을 연구하는 실험성이 돋보이는 작가로 높이 평가 받고 있음
- 2005년부터 스코틀랜드 국립 극장의 첫 번째 드라마터그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임 중

# 연출 및 스태프 소개



## 연출 임지민

주요작품: 연극 <타이니슈퍼맨션> 작/연출  
연극 <알려지지않은예술가의눈물과자이툰파스타>,  
<카사노바>, <Ball Alive> 연출.  
AYAFA아르코가 주목하는 젊은예술가시리즈선정  
제40회 서울연극상 대상 수상  
제58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연출상 수상

## 번역/드라마터크 이단비

주요작품: 전 극단 고래 드라마터그,  
EMK 뮤지컬 컴퍼니 및 국립 오페라작 외 다수

## 무대디자인 이창원

주요작품: 연극 <창신동이야기>, 연극 <말뚝의눈물>,  
연극 <타이니슈퍼맨션> 외 다수  
제40회 서울연극제 무대디자인상 수상

## 조명디자인 이현규

주요작품: 뮤지컬 <레드북>, 연극 <타이니슈퍼맨션>  
외 다수

## 음향디자인 임태형

주요작품: 뮤지컬 <완득이>, 연극 <카사노바> 외 다수

## 의상디자인 도연

주요작품: 뮤지컬 <광화문 연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외 다수

## 분장디자인 백지영

주요작품: 연극 <꿈>, 연극 <엄마이야기>,  
연극 <언덕을넘어서가자> 외 다수

## 움직임디자인 김진

주요작품: 연극 <보도지침>, 연극 <달려라아비>,  
뮤지컬 <미스터산타클로스>, 뮤지컬 <홍련> 외 다수

## 음악 진경환(1), 김태우(2)

(1) 주요작품: 72초TV 디렉터 / 크리에이티브그룹 <인더비> 디렉터  
한양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겸임교수

(2) 주요작품: 72초TV 음악감독 / 연극 <리어왕>,  
연극 <타이니슈퍼맨션> 외 다수

# 출연진 소개



## 배우 김은석

<뚝날>  
<아일랜드행 소포>  
<철로>  
<오이디푸스>  
<단테의 신곡>  
<토일릿 피플>  
<변태>  
제40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 배우 남미정

<위대한 놀이>  
<말뚝의 눈물>  
<아끼니꾸드래곤>  
<오구>  
제40회 동아연극상 새개념 연극상  
제40회 동아연극상 여자 연기상  
제40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외 다수 수상



## 배우 이종민

<파란나라>  
<망각댄스\_세월호편>  
<그러므로 포르노>  
<구직>  
<로봇을 이겨라>  
<슬픈인연>  
<템페스트>



## 배우 이지혜

<추남미녀>  
<카사노바>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  
<썬샤인의 전사들>  
<순우삼촌>  
제41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 시놉시스



방 두 칸짜리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살고 있는 덕은 커콜디라는 작은 스코틀랜드 마을에 사는 십대 여자아이다. 덕의 엄마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는데 그 때 덕은 겨우 세 살이었다. 고등학생이자 소설가인 덕은 아버지 휴를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 나간다.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휴는 쓰레기통 같은 거실에서 인스턴트만 먹으며, 밤마다 게임 속 가상세계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간다. 이런 그들에게 어느 날 사회복지사의 방문이 통보되고, 아버지와 자신이 사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면 미성년자인 자신을 보호시설로 보낼것이라 생각한 덕은 "문제없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문제없는 평범함과 요리를 연습한다.

예상보다 급하게 초인종이 울리고, 의외의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그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세 번째로 초인종이 울리고, 진짜 사회복지사의 방문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문제 없는 가정"을 연기하고, 그 와중에 각자의 방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엉키고 설킨 상황이 벌어진다.

덕은 연극반에서 만난 로렌스, 아버지 휴, 아버지 손님인 아그네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언더힐과의 불편한 만남속에서 결국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고 그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엄마의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한다.

# 공연 소개



- <집에 사는 몬스터>는 '자신의 한 칸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 덕의 성장 이야기' 이다.

## 창작 배경

- <집에 사는 몬스터>는 우란문화재단의 창작개발지원 과정에서, 공연 콘텐츠 전반을 지원하며 작품을 개발하고 무대화하는 프로그램인 시야 스튜디오를 통하여 2017년 낭독 공연으로 처음 관객을 만나게 되었다. 이 창작 과정에는 특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극 작업이 대본에서 출발한다면, 이 작품은 공연 '형식 연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창작개발지원 프로그램에서 연출가 임지민은 '형식 연구'라는 화두를 가지고, 서양미술사/철학/미학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갔다. 그 과정에서 연출자의 '큐브 세계관'이라는 결과물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큐브 세계관'이 어떻게 공연의 형태와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지금의 드라마투르그를 통해 데이비드 그레이그의 희곡 <the Monster in the Hall>을 만나게 되었다. 이처럼, 연출가의 공간 개념이 희곡과 만나게 되면서 라마플레이 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집에 사는 몬스터>의 독특한 세계가 창작되었다.

평단의 찬사와 수상을 받은 공연이며, 연극 매니아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계층을 명랑하게 다뤄낸

- 덕에 소재면에서도 매니아들이 있다.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공연이다.

# 집에 사는 몬스터는...



## 열려 있는 대본:

작가 **David Greig**의 대본에는 화자가 기입되어 있지 않고, 대사들만 나열되어 있다. 짧은 호흡으로 주고받는 대사들이 진행되면서, 관객들은 그 중심에 '덕'이라는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주인공 덕을 둘러싸고 있는 실제의 주변, 상상의 주변, 마음의 주변에 속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그녀만의 리듬에 맞게 시시각각 제 맘대로 주변 인물들과 대사를 주고받는다.

## 동시적 다중 시점의 무대 구상:

**연출 임지민의 무대**에는 보는 관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배우들이 불규칙한 방향성으로 등장한다. 다양한 방향으로 관람하게 되는 파편적인 무대는 극이 주인공 '덕'을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석 구석 밝혀진다. 작은 평수의 한 칸에서 시작된 공연은 덕이 주변 세상과 만나면서 평수가 넓어지는 듯 하나, 여러 인물의 칸이 아니라 여전히 덕의 한 칸 안으로 관객들과 인물들을 끌어들인다.



# 작품개발과정 / 공연 연혁 / 수상



## Show

- 2018.1월. ■ 트라이아웃 공연
- 2018.02. ■ 서울문화재단 작품지원 선정
- 2018.04. ■ CJ문화재단 대관지원 위촉작 선정
- 2018.08.20. ~ 09.02. ■ CJ AZIT 본공연
- 2019.01. ■ 제40회 서울연극제 작품으로 선정
- 2019.05.17. ~ 05.26. ■ 서울연극제 공식참가작 공연



# 작품개발과정 / 공연 연혁 /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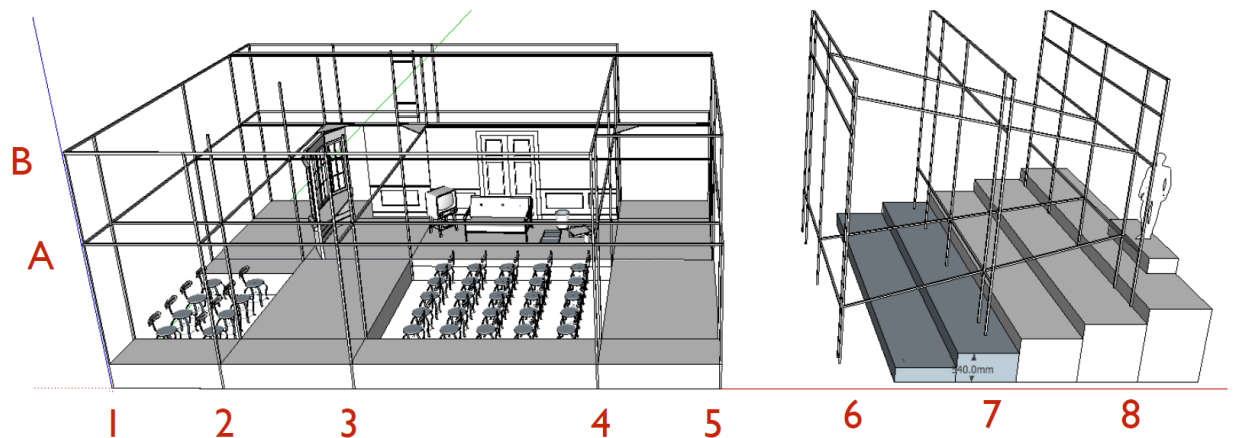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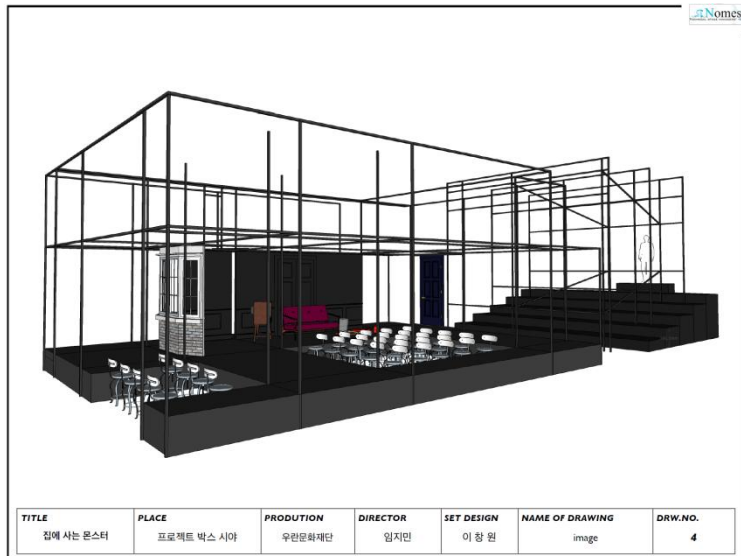


# 무대연출 in 1차공연



SK 우란문화재단 기획.제작.후원.

블랙박스 전 공간을 채우며 객석을 둘러싼 4면 무대를 만난 관객들은 회전의자에 앉아 자유롭게 방향을 선택하며 관람할 수 있다. 이 선택에 자유를 줌으로써, 관객들은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무대위의 배우들도 더욱더ダイナミック하고 리얼한 연기를 통해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빼앗아 오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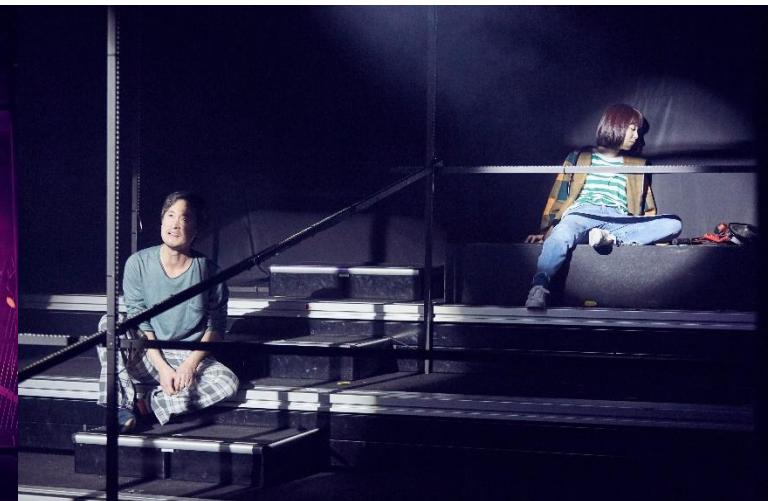




# 1차공연 - 프로젝트박스 SEEYA 극장



SK 우란문화재단 기획.제작.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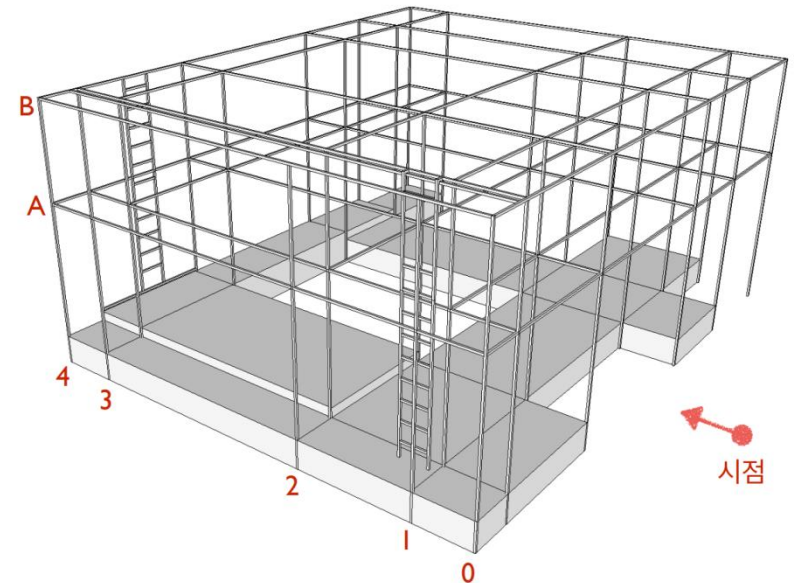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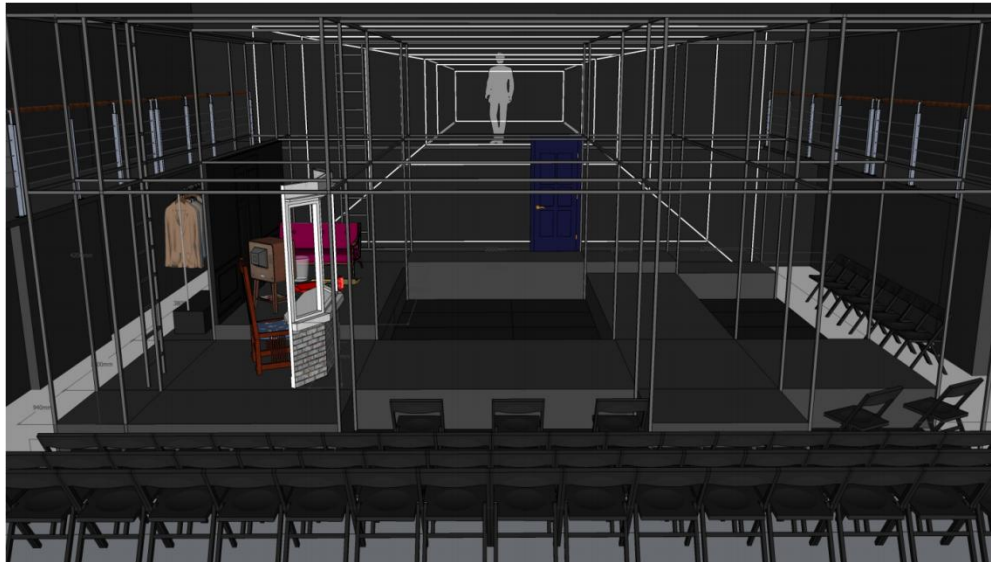


# 무대연출 in 2차공연



CJ문화재단 공간지원. 서울문화재단 제작지원. 라마플레이 제작.

이 공연은 주인공 덕(의 육면체)을 계속 팔로우한다. 그녀가 동요하는 대로 육면체는 움직인다. 한 칸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녀가 어느 새 두,세칸이 합쳐진 육면체에 살기도 한다. 극에서 그녀와 만나는 첫 번째 칸은 관객석이다. 관객석 한 칸은 극 중에 그녀의 칸과 떨어지기도 하고, 그녀와 다른 칸 사이에 끼이기도 한다. '덕'은 주변과 만나고, 부서지고, 다시 닫히고, 합쳐지기도 하면서 세상을 만나지만, 마지막 까지 본인의 한 칸만은 지켜내게 된다. 그 모습은 소위 [큐브 세계관]을 물리적으로 구현해내고자 했던 이 무대컨셉을 통해 관객에게 가깝고도 멀리 다가가게 된다.



# 2차공연 - 대학로 CJ AJIT 극장



CJ문화재단 공간지원. 서울문화재단 제작지원. 라마플레이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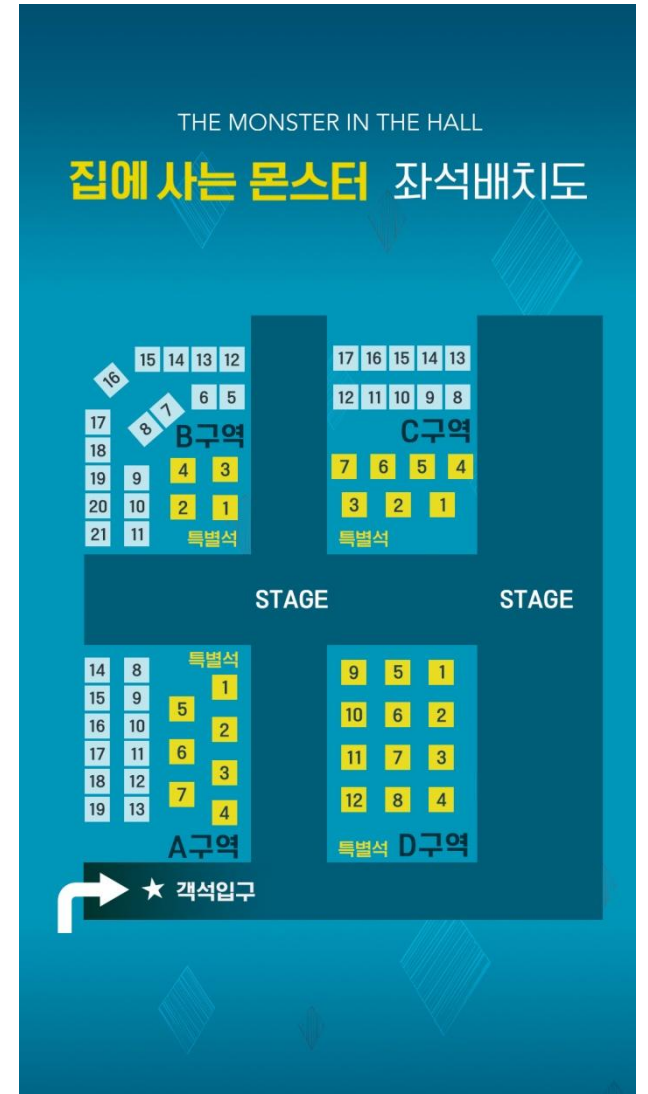




# 무대연출 in 3차공연

서울연극협회 제작지원.후원. 라마플레이 제작.

대본이 덕의 성장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무대는 대본에 쓰여진 덕의 성장기간동안 생성된 주변과의 공간관계를 물리적으로 보여준다. 관객들이 공연을 보기 시작할 때에는 작은 한 칸의 프로시니엄 무대를 보는 듯했지만, 곧 다른 작은 한 칸의 무대들이 제 각각의 방향에서 조명을 받고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 공간에서는 '덕'만 보고 싶어도 의자를 돌려야 하고, 각자의 마음이 동하는 방향으로 보더라도 의자를 돌려가면서 공연을 보게 된다. 물론, 고정된 상태로 귀만 기울이게 될 수도 있겠다. 극중 인물을 "바라볼" 것인지, "동행할"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관망할 것인지" 자연스럽게 관람 방식도 주체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 3차공연 - 서울연극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서울연극협회 제작지원.후원. 라마플레이 제작.





# 무대와 객석의 확장



1차 2018 트라이아웃 공연 - 18석  
(극장: 우란 프로젝트박스 SEEYA)

2차 2018 CJ 첫 본공연 - 75석  
(극장: CJ아지트 대학로)

3차 2019 서울연극제 공연 - 70석  
(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4차 2023년 9월 28일 - 10월 3일  
**129석** (극장: LG아트센터 U+스테이지)





# 2023 언론보도



## 서울연극제 대상작 '집에 사는 몬스터'...4년만에 재공연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3-08-22 06:39 송고



집에 사는 몬스터

연극 '집에 사는 몬스터'가 2019년 초연 이후 4년만에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초연 당시 제40회 서울연극제에서 대상 및 주요 연기상을 휩쓴 바 있다.



어딘가 특별한 부녀들...부녀관계 소재 연극 3편 내달 개막



연극 '집에 사는 몬스터'

[라마플레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 달 28일부터 LG아트센터 서울서 관객을 만나는 '집에 사는 몬스터'는 십대 소녀 덕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유쾌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 '제40회 서울연극제' 대상 수상작, 연극 '집에 사는 몬스터' 4년만에 컴백

단 6일간의 공연, 22일 티켓 오픈...9월28일 개막

LG서울아트센터 U+스테이지 블랙박스 극장 최대 활용한 무대로 컴백

김태민 기자 승인 2023.08.22 16:25 의견 0



포스터. (자료=라마플레이)

# 언론 보도



- 화자가 없는 희곡에 유쾌한 발상과 생기를 불어넣은 연극 <집에 사는 몬스터> - 뉴스프리존.2019.06.01.
- 4면 무대와 4면 객석이 만나는 독특한 작품 “집에 사는 몬스터“, 임지민 연출 “ - 플레이투스페이지.2018.10.30.
- 연극 '집에 사는 몬스터' 360도 객석에서 느끼는 관계성...“새로운 경험 “ - 뉴스핌.2018.08.20.
- 김은석 · 남미정 · 이지혜 · 이종민 뭉쳤다..‘집에 사는 몬스터’ 서울연극제 공식 초청 - 한국정경신문.2019.04.16.
- 평범한 무대 저버린, 4면 활용한 배우와 객석 만남...연극 '집에 사는 몬스터' - 뉴스컬처.2018.09.14.
- 집에 사는 몬스터 ...직육면체의 삶에서 나를 느끼다. - 매일경제.2018.08.23.
- 관객중심 4면 무대로 즐기는 연극 ‘집에 사는 몬스터’ -연합뉴스.2018.08.08.
- 관객이 무대 일부 360도 객석...색다른 무대 ‘집에 사는 몬스터’ -화이트페이퍼.2018.08.23.
- 나를 중심으로 한 360도, 우리 모두가 ‘집에 사는 몬스터’ -브릿지경제.2018.08.21.
- "360도 인생" 회전 의자서 보는 4면 무대...‘집에 사는 몬스터’ -뉴데일리.2018.08.21.
- “무대 공간과 연극의 실물감 교차할 때 짜릿” -동아일보.2022.01.10.
- 서울연극제, 라마플레이 '집에 사는 몬스터' 대상 · 연기상 · 무대예술상 등 4관왕 차지 -매일일보.2019.06.03.
- 연출소개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710120003070?did=NA> - 한국일보.2021.04.09.

# 평론 / 시상평



“연출가 임지민은 이 희곡을 보고 먼저 공간에 대한 실험을 떠올렸다고 한다. 객석을 십자형의 무대를 만들어 관객을 사이에 배치하자 공간의 실험과 함께 동선의 다양성이 역동적으로 유도되고 동시에 무대와 관객의 밀도 역시 강화된다. 공간에 대한 실험과 동시에 임지민은 역할 놀이와 마임의 연극성을 강조하여 공연의 재미를 배가한다.

즉, 여러 명의 등장인물을 남미정 배우가 능청스럽게 연기하면서 유희성이 활성화되는데, 관객의 시선 안에서 천연덕스럽게 린다 역과 아그네스 역을 오가는 남미정의 모습과 이를 모르는 채 대하는 상대 인물의 모습은 연극적 상상력의 유효함을 입증한다. 모바일 폰과 컴퓨터에 의해 차단된 가족 간의 대화가 일상화된 우리 관객에게 가족의 온기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일깨운 공연으로 특히 청소년에게 권하고 싶었던 공연이다.

무대는 패션쇼의 런웨이 같은 십자로 무대를 세우고 객석을 사이사이 배치했다. 이로써 관객은 훑쳐보는 시선, 대화하는 시선, 목격하는 시선, 비판적 거리를 두는 시선 등 무대 위 사건과 서사에 대해 다양한 시선을 갖게 되었다.

(중략) 이번 공연에서 무대미술의 선택이 이채로운데 비계처럼 세워진 파이프라인 프레임은 덕이 처한 불안정한 환경을 잘 담아내면서 다양한 연극적, 해석적 효과를 낸다. 특히 평소라면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객석의 맨 끝줄로 사용될 공간을 사고로 넘어져 고립되어 있는 '덕'의 장소로 연출한 장면이 새롭다. 극 마지막 회복을 암시하는 결말 속에서 마지막 장면, 가족 개념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빛을 내는 파이프라인의 액자 틀은 우리 삶의 보석 상자처럼 빛을 낸다. 이로써 십자 무대는 덕이 자신을 찾아가고 감정을 표현하는 삶의 런웨이로 해석이 귀결되며, 모패드로 야생의 스코틀랜드 자연 속을 달리는 장면 속에서는 속도감과 원근감을 효과적으로 연출하는 기능 또한 해낸다.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주관 '서울연극제 합평회'



# 2023 기대평 \_인터파크



jacuzzi\*\*\* | 2023.08.30 | 조회 2 | 댓글 0

**21세기를 바라보는 연극과 LG아트센터 공연장과 초연의 추억의 교집합을 기대합니다.**

최근 LG아트센터에서 다양한 공연을 보면서 유명 배우의 대극장 공연과 강서지역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공연이 고전 극 중심이기에 사뭇 아쉬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는 연극 "집에 사는 몬스터"는 현재 대한민국에 연극의 젊은 연출에 중심인 임지연 연출이 기대됩니다.

또한 4년전 용산 프로젝트 시야에서 한 초연의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초연 때 배우님들을 LG 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어 정말 강렬한 기대와 염원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데이비드 그레이그의 작품을 올해 다시 만날 수 있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 멋진 공연을 LG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4년 전의 추억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

dnfldk\*\*\* | 2023.08.29 | 조회 1 | 댓글 0

**제목만 봐도 기대가 되는 연극**

제40회 서울연극제에서 대상을 탄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꼭 보고 싶다고 생각한 작품이었는데 4년만에 돌아오다니 무척 기쁜 소식이에요. 한 소녀의 성장기라는 점은 이미 시놉스를 통해 알고 있는데, 제목에 나오는 몬스터가 질풍노도의 시기에 놓인 사춘기 소녀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외압을 의미하는 건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한없이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를 누구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데이비드 그레이그 극작가와 임지연 연출가의 연출이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공연은 그러한 장점이 극대화 되지 않을까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닫기 ▲

등록

uraeus\*\*\* | 2023.08.29 | 조회 4 | 댓글 0

**4년만에 돌아오는 "집에 사는 몬스터"**

4년 만에 돌아오는 "집에 사는 몬스터"!!! 초연 배우 4명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만 해도 기쁘는데, 거기다가 엘지아트센터와의 결합이라니 이걸 너무 기대가 되네요. 엘지 아센은 연극 "파우스트" 보고 나서 공연장 너무 좋다! 라고 감탄한 장소라서 더 두근두근 합니다. 특히 4면 객석과 4면 무대를 활용하고 고정 의자가 아닌 회전의자로 관객으로 하여금 시선의 자유를 느끼게 연출했다는 점에서 꼭 보고 싶네요.

데이비드 그레이그의 작품의 경우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를 다루면서 항상 인간에 대한 따뜻한 감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흥흥한 기사가 많은 요즘 공연을 통해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닫기 ▲

등록

da1\*\*\* 예매자 | 2023.08.27 | 조회 2 | 댓글 0

**너무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자신의 "'한 칸'"을 지키려는 소녀 '덕'의 이야기 이 한 줄만으로도 너무 제 취향일 것 같아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덕이 어떤 사연으로 자신의 한 칸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지난 시즌에도 평이 좋길래 보고 싶었는데 놓쳐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는 꼭 보고 싶어요 정말 기대됩니다

닫기 ▲

등록

# 지난 리뷰 / 관람평 \_인터파크



★★★★★

mindpo\*\*\* | 2019.05.25 | 조회 59 | 공감 0 ♡

## 3번째 관람

여태 없었던 형식의 공연. 연출자의 다음 작품이 기대 된다. 작품도 좋지만 연출이 정말 신선하다. 특히 배우들의 역량이 빛을 발한다. 안보신분들 꼭 보시길

★★★★★

uam\*\*\* 예매자 | 2019.05.19

## 상황이 만들어낸 퍼즐조각들

극이 시작하면서 다가왔던 낯설음은 새로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봤습니다^^

★★★★★

ohj101\*\*\* 예매자 | 2019.05.20 | 조회 68 | 공감 0 ♡

## 길게 오래하면 좋겠어요

대본이랑 연출이 정말 재밌었는데 나와서 재예매하려니. 표가없네요 ㅠ

★★★★★

mamot\*\*\* 예매자 | 2019.05.20

## 통통 튀며 달려가는 재미있는 연극

이전에 올라왔을 때도 봤었는데 다시 봐도 재밌었습니다.

객석이 재미있게 나눠져 무대가 평범하지 않은 점도,

배우들이 연기하는 장면이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가 된다는 점도 재밌었습니다.

즐겁게 잘 봤습니다.

# 지난 리뷰 / 관람평 \_인스타그램



hxxsunn · 팔로우  
대학로예술극장



yeonduki님 외 39명이 좋아합니다

hxxsunn #집에사는몬스터 #서울연극제 #연극 #혜화  
4면 무대. 4면 좌석 보기도문 블랙박스 형태, 원래 좌석을 막으  
로 가려놨을줄이야 무대 사이에 앉아서 공연 본 셈이네? 게다가  
의자는 바퀴달린 사무실 의자, 무대가 여러곳이니 몸 돌려가면  
서 관람하라고 🤖🤖 원작은 화자가 없는 글이었는데 연극으로  
잘 풀어냈다 연출이 참 빛났던 공연. 힘껏 박수를 보내고 극장문  
을 나서는데 왠지 마음이 벅차는 동시에 울컥하고 힘이났다 왜  
막공날 왔는가

Oinoino1n 👍

5월 26일

jeongsilver\_inside · 팔로우  
대학로예술극장



yeonduki님 외 28명이 좋아합니다

jeongsilver\_inside 190525 서울연극제 <집에 사는 몬스터>  
>  
4면 무대. 4면 객석. x축-y축-z축. 육면체. 한칸. 홀로혼자. 청  
소년. 몬스터. 막과 장 사이의 뽁 소리.  
뭔가가 날 뜨겁게 만들고  
눈물이 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자신이 생각한 우주가 세상의 전체가 아니라,  
사람들은 "저마다의 우주를 이고" 스치며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그런 그림을..

#연극 #집에사는몬스터 #제40회서울연극제

moonlightmaru · 팔로우



yeonduki님 외 175명이 좋아합니다

moonlightmaru #서울연극제#집에사는몬스터#데이비드그  
레이그#대학로예술극장#임지민연출#김은석#남미정#이지혜#  
이종민#대학로연극#공연#달빛마루 예술극장소극장을 단66석  
으로 줄이고 과감히 전체를 무대로 만든 임지민연출 기대대는  
젊은 여류연출가!!

jinh\_hyejin 궁금했던 작품중 하나였습니다. 담에 얘기 들  
려주세요. ㅎㅎ



# 지난 리뷰 / 관람평 \_인스타그램,트위터



amietlee님, jiminnnnnnnnnnnn님 외 100명이 좋아합니다

porco\_rosso\_ 정말 좋다... 역시나 이번에도 사회는 우리를 내치는줄 알았지만... 친구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손을 잡아주는 듯 했다..너 이상하지 않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외쳤다. 오토바이싸이에서 눈물이.. 3월의 눈 이후로 침이다.

댓글 3개 모두 보기

dajungan\_minji 나도 오토바이싸이 좋아함 🍀

porco\_rosso\_ @dajungan\_minji 그쵸?? 저 거기서 오열했어요ㅜㅜ 저렇게 세상으로 나가는구나ㅜ

5월 23일



190524  
집에 사는 몬스터

진짜 대본도 재밌고 연출도 재밌고 심지어 연기도 재밌고 자칫때 우와 좋다고만 생각했지 뭐가 좋은지 구체화가 안됐는데 자들하니까 좀 더 명백해진다



yeonduki님 외 31명이 좋아합니다

jeeheek #집에사는몬스터

덕은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던 걸까? 회전하며 볼 수 있는 좌석을 만든 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체험해보라고 의도한 것 같았다. 인생은 바이크를 타는 것과 비슷한가봐.. 짱 유쾌했던 집에 사는 몬스터

#서울연극제

goodayeong 덕이라는 이름 들을 때마다 니가 생각났다



yeonduki님 외 38명이 좋아합니다

victoria181223 #집에사는몬스터

#40th서울연극제

이번 연극제에서 꼭보고싶었던 작품.

제목이 매력적인 이 작품은 관객석도 색다름을 보여주었는데 무엇보다 의자 편했다.

회전의자라니.. 내가 보고싶은방향으로 360도 회전하며 공연을 볼수있었다. 자리도 선택할 수 있는 즐거움!

덕이는 16세 소녀. 그 아이에게 소중한 가족 아빠. 그들이 서로를 지키기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모습.

집에사는 몬스터는 나에게 가족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를 지키고있는 가족이며. 그 가족이란건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임을.

#서울연극제 #공연나들이 🍀 #우리집에도몬스터가 #내가지키고싶은건 #재미있는무대 #남미정배우님 #배우님들최고 👍 #대학로예술극장소극장



# 지난 리뷰 / 관람평 \_인스타그램,트위터



yeonduki님 외 35명이 좋아합니다

b0\_j 20190522 #집에사는몬스터  
연극제 작품 일곱 번째 관람  
키아-

무대를 정말 감각있게 사용했다.  
기존에 있던 무대 위에 객석을 만들었고,  
객석을 4면으로 나누어 좌석 구역마다 보는 시선이 새롭게끔 구  
성했다.

기존 객석을 무대로 사용했는데 이게킬링파트 ✨!

그래서 보는 내내 새롭고 재밌었음 😊.

감각 몹니까 진짜 ㅠ

보는 것 만으로도 이런데 연극을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유 🤔

내내 미소짓고 보게 된 연극 :) 꿀이다 진짜류 🍯 .

#대학로 #연극 #추천 #혜화 #연극집에사는몬스터 #누가이연  
극에꿀문헛슈~ #연극 #재밌는연극 #아따패키지잘꿨다잉 ~!  
#대학로예술극장



yeonduki님 외 13명이 좋아합니다

pine\_you

어떤 이를 연민하고 마음 깊이 응원하게 되는 감정이 기상천외  
한 웃음과 섞여 들어간다. 난생 처음 맛본 새로운 요리 같은데 그  
맛이 걸돌지 않고 꽤 그럴싸하다.

후반, 덕의 고독한 우주를 조명하는 것 같은 순간은 인상적인 감  
각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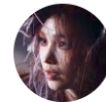
#서울연극제 #집에사는몬스터 #라마플레이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해박 @haebak\_28 · 2019년 5월 24일  
와 여기 회전의자야ㅋㅋ 이런 극장의자 처음봄



해박 @haebak\_28 · 2019년 5월 24일  
뭘보고 나온거지? 신의작품인가?



해박 @haebak\_28 · 2019년 5월 24일  
플로리다 프로젝트 인생영화인 사람은 울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1열에서 린  
다 책자 받았네 ㅋㅋㅋㅋㅋ 수미상관을 기가막히게 썼네요 무대활용도 진짜..  
뒤에 덕 오토바이탈때 소리지를뻔했네 이걸 말로 표현을 못한다 세상에 이러  
게 좋은극이



해박 @haebak\_28 · 2019년 5월 24일  
경쟁이 인생이었던 로지가 죽고 그와 정반대의 신념을 가진 린다가 덕에게 손  
내밀어주는 거 너무 좋아서 울어.. 몬스터는 오토바이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버  
지이기도 한거같다 온 집안에 오토바이 부품이 굴러다니는 걸 몬스터때문에  
발이 베인 것 같다고 표현한거 진짜... 어떻게 극본을 이렇게쓰지



감 사 합 니 다

- And 부릉 -